천국의 위치에 대한 오해

(마태복음 11:1~6)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의 위치에 대한 오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의 위치에 대한 오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의 위치에 대한 오해를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천국의 위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오해가 얼마나 유혹적이고 강력한지를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웬만하면 다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오해가 예수님의 교회를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이 오해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방치한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괴멸될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천국의 위치를 모르는데 천국에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이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라는 말은 어떤 것보다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살펴본 10장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전치사 하나가 천국의 위치를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위로(over), ~을 넘어서(beyond)의 뜻을 가진 헬라어 휘페르(ὑπὲρ)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천국의 위치를 가늠하는 네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36~37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전치사 휘페르가 나타납니다.
또 이어서 38~39절 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더’로 번역된 전치사 휘페르는 ‘~위로, ~을 넘어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위치를 염두에 둔다면 ‘~을 넘어서’라는 단어가 적합한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마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어 사랑하는 대표적 대상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보다도 천국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써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기에 예수님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예수님을 지나친다면 천국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천국을 지나쳐서 몸을 통해 가족을 비롯한 세상의 대상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생각해 봄으로써 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상황에서 위치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마음이 있고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 곳에 친척이나 친구와 작장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몸을 통해서 만나는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사물과 사건을 대합니다. 의식주나 해야 될 일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몸을 통해서 이러한 대상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 구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가장 가까웠던 몸 사이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기존의 구도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지나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우자 문제로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문제로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예수님을 지나쳐서 몸과 관계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설령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지나쳤기 때문에 원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업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사업으로 인해 걱정하게 된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을 지나친 것입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지나쳐서 몸을 통해 사업과 관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위치하시는 곳은 마음과 몸 사이입니다. 마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배우자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몸 보다는 멀리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마음으로 붙잡고 예수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실은 몸과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나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지점도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천국의 입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면 일반적으로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천국의 위치는 오해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몸으로 만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 만나는 일이 있고 사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들에서도 순서가 존재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선적인 순서가 있고 일 중에서도 앞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나 천국을 가져다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 죽은 다음에 천국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 위치에서 들어갈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삶의 끝이 아닌 바로 나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폭발 같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라고 상투적인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서 이미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죽음 뒤로 미루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삶보다 앞섭니다. 우리의 삶은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몸보다도 가까운 위치에 예수님과 천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말을 다시 풀어보자면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치도록 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꾀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조차 사탄의 꾐을 받아서 마음이 예수님을 지나쳐서 몸을 통한 세상일들에 마음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조차도 이러한 꾐에 넘어갈 뻔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

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으로써는 이외에 다른 관심사는 달리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본문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을 것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회의에 빠지게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5절을 통해 활동하신 내용을 개괄적으로만 설명하고 계시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써 '오실 그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위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였고, 또 12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였던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였으나 심판과 형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달랐던 천국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성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형벌과 심판을 강조한 이유는 천국이 몸과 연관된 영역에 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서 살펴보았던 위치적 구도에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몸으로 만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의 위치를 몸을 통해 만나는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접하는 영역에 천국이 임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몸으로 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행위에 합당한 열매로써 회개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천국관은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써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고 왕이 되셔서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이 임할 때에는 먼저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육체적 형벌과 심판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과 심판은 기존의 유대사회를 뒤흔들 혁명적 사건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와 일치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나타나는 날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것 같은 심판이 주어지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천국이 임해야 할 곳은 몸을 통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위치는 오히려 마음과 몸 사이입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관에서도 하늘에 있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천국을 대하는 입장에서 몸을 통해 접하는 인간사회에 천국이 임할 것이라 여겼기에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6절에서 ‘실족’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십니다. 실족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긋나거나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써의 역할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천국 맞춤형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역할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어긋남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유혹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위치를 바로잡음으로써 신앙적으로 무척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나라 유대사회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증거로써 악을 행하던 지도자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같은 자들에게 형벌과 심판이 주어질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기존에 심판을 하던 지도자층이 역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곧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적은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였으나 형벌과 심판을 주도할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전 사회적으로 심판과 형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자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회개혁 대신에 천국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해결 대신에 천국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이 주는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몸으로 접하는 삶의 상황이 개선되거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회란 마음이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위치하신 지점은 몸과 마음 사이입니다. 몸으로 행동하기 이전의 지점에 예수님과 천국은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앞에서 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위치를 지나쳐서 몸을 통해 만나는 돈이라는 대상에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나친 뒤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어도 예수님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주셨으리라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차원에서 섭리하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위치에 있지 않기에 예수님이 하실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곳은 바로 마음과 몸 사이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 만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은 “나를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으리라 믿으며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를 계속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오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이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몸을 통해 만나는 문제로 보내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몸으로 사는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오르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말끔히 끊어진 뒤에 예수님이 내신 하늘 길을 따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의 풍랑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의 풍랑, 가정 문제의 풍랑, 직장 문제의 풍랑 등 가지가지 풍랑 속에서 살아갈 때에 몸으로 느끼는 풍랑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해결하시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낚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권 안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던 것은 몸으로 대하는 삶의 영역에 천국이 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 사이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지나쳐서 천국을 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삶의 현장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권 안으로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쉽게 지나치면서 문제나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개선과 해결을 기대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사회에 형벌과 심판을 통한 혁명적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가 실족할 뻔했던 것과 같습니다.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이 이끌어갈 영역이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보낼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주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마귀의 꾐에 빠져 생겨난 유전죄로 삶의 주권자로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전 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이 천국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나쳐서 이전처럼 마음이 몸을 향하고 또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을 향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받는 것이 없으니 신앙은 형식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부류가 되거나 혹은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생활은 교회생활대로 하고 삶은 삶대로 살게 됩니다. 실족의 연속 속에서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나친 상태로 기도해봐야 주어지는 게 없으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란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예수님과 천국을 지나쳐서 몸을 향하고 세상의 바다에 빠져있으니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구원과 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이 끝난 다음에나 천국을 두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몸을 통한 삶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오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지금 당장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끌고 가려는 몸과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오해를 극복하고 정확한 지점에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권 안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예수님 만세! 우리 천국 만세! 우리 아버지 만세!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역사하실 성령님 만세입니다.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온전히 아버지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